고려건축(高麗建築)과 이조건축(李朝建築)

金正基

-차례-
서언(序言)
건축양식(建築樣式)
주심포(柱心包)집 양식(樣式)의 유구(遺構)
다포(多包)집 양식(樣式)의 유구(遺構)

서언(序言)

우리들이 고건축(古建築)을 논(論)할 때에는 흔히 그 대상(對象)으로서 목조건물(木造建物)과 석조건물(石造建物)을 들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목조건물(木造建物)에 한(限)하여 말할까 한다. 그것은 지면(紙面)에 제한(制限)이 있고 또 주어진 제목(題目)에 공통(共通)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목조건물(木造建物)이며 또 그것이 한국건축(韓國建築)의 주류(主流)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건축(建築)은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중국대륙(中國大陸)으로부터 불교문화(佛敎文化)가 도입(導入)되어 이와 전후(前後)하여 발달(發達)된 건축기술(建築技術)이 전(傳)해 지므로써 비약적(飛躍的)인 발전(發展)을 보게되었다. 이 이전(以前)의 우리 나라에 있었던 건축(建築)이란 아직 원시적(原始的)인 영역(領域)을 벗어나지 못한 기거(起居)를 목적(目的)으로 한 규모(規模)가 적은 간단(簡單)한 수법(手法)으로 된 건물(建物)이었다. 이러한 사실(事實)은 고문헌(古文獻)이나 또는 고고학적(考古學的) 조사(調査)에 의(依)하여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當時) 중국대륙(中國大戮)으로부터 도입(導入)된 건축수법(建築手法)은 현재(現在) 우리 나라에 유존(遺存)하는 고려(高麗) 또는 이조시대(李朝時代)의 목조건물(木造建物)과도 그 가구방식(架構方式)이나 의장양식(意匠樣式)에 있어서 근본적(根本的)으로는 대차(大差)가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이것은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 축조(築造)된 고분(古墳)의 구조(構造)에 목조건물(木造建物)의 양식(樣式)을 나타낸 유례(遺例)가 있고 또 벽화(壁畵)속에서도 당시(當時)의 건물(建物)을 그린 것이 있어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 건축(建築)은 그 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중국대륙(中國大陸)의 영향(影響)을 받아가면서 신라통일시대(新羅統一時代)를 거쳐 고려(高麗) 이조(李朝)로 전(傳)해지면서 불교건축(佛敎建築)을 비롯하여 궁전(宮殿), 저택(邸宅), 성문(城門) 및 관아(官衙) 등 많은 종류(種類)의 건축(建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나라에 유존(遺存)하는 목조건물(木造建物)로서는 고려중기이후(高麗中期以後)에 건립(建立)된 몇몇의 고려시대(高麗時代) 건물(建物) 이외(以外)에는 모두가 이조시대(李朝時代)에 건립(建立)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현존(現存)하는 고건물(物)에 대(對)한 양식적(樣式的)인 고찰(考察)과 그 해설(解說)을 가(加)해볼까 한다.

건축양식(建築樣式)

고려초기(高麗初期)의 건축(建築)은 신라시대(新羅時代)의 건축(建築)을 그대로 계승하여 점차 부분적(部分的)인 발달(發達)을 보게되어 고려(高麗)로서의 특유(特有)한 건축상(建築相)을 나타내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오늘날에 그 유구(遺構)를 남기지 않기에 그 실태(實態)를 파악(把握)하기는 매우 어렵다.

고려중기(高麗中期)에 있어서는 이때까지 중국(中國)의 중앙부(中央部)에서 중앙정권(中央政權)을 형성(形成)하던 송(宋)이 중국동북지방(中國東北地方)에서 일어나 점차 그 세력(勢力)을 넓혀온 몽고족(蒙古族)에 의(依)하여 남(南)쪽으로 그 판도(版圖)를 옮기게 되자 고려(高麗)는 이들 몽고족(蒙古族)의 압박(壓迫)을 받아가면서도 송(宋)과의 비공식(非公式)적인 교류(交流)를 계속하여 당시(當時) 중국남방지방(中國南方地方)인 복건성(福建省)부근(附近)에서 성행(盛行)하던 새로운 건축양식(建築樣式)을 도입(導入)하게 되었다. 이 양식(樣式)이 소위(所謂) 우리들이 말하는 주심포(柱心包)집양식(樣式)의 조형(祖形)일 것이다. 그 후 몽고족(蒙古族)에 의(依)하여 중국대륙(中國大陸)이 통일(統一)되어 대원제국(大元帝國)이 그 기반(基盤)을 확고(確固)히 하자 우리 나라는 이의 모든 문물(文物)을 본받게 되었다. 건축(建築) 역시 예외(例外)일 수 없어 중국 동북부(中國東北部)에서 일어났던 요(遼), 금(金)등에서 성행(盛行)하다 원(元)에 의(依)하여 중국대륙(中國大陸)에 전파(傳播)된 화려(華麗)하고 웅건(雄建)한 새로운 건축양식(建築樣式)이 도입(導入)되었던 것이며 이것이 다포(多包)집양식(樣式)이다. 그후 우리 나라의 건축(建築)은 이 두 가지 양식(樣式)만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현존(現存)하는 고건축(古建築)은 이 두 양식(樣式)으로 대별(大別)된다. 주심포(柱心包)집양식(樣式)과 다포(多包)집양식(樣式)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입(導入)된 경위(經圍)도 다르고 원래(元來) 이질적(異質的)인 것이었으나 고려말경(高麗末頃)에는 이미 그 세부양식수법(細部樣式手法)이 절충(折衷)되어 가구방식(架構方式)을 합리적(合理的)으로 개량(改良)하고 장식적(裝飾的) 의장(意匠)의 융합(融合)등이 있어 중국대륙(中國大陸)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韓國) 고유(固有)의 건축양식(建築樣式)으로 발전(發展)되어 나갔으며 점차로 세부양식(細部樣式)과 수법(手法)에 있어서 두 양식(樣式)사이에는 본격적(本格的)인 차이(差異)를 보지 못하게까지 되었다. 현재(現在) 우리 나라에 유존(遺存)하는 목조건물(木造建物)은 중국(中國)에서 도입(導入)된 두 양식(樣式)의 조형(祖型)으로부터 변화발달(變化發達)된 것으로써 엄격(嚴格)히 말하여 도입(導入)된 원래(元來)의 양식(樣式) 그대로 남기고 있는 건물(建物)은 전혀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존(現存) 고건물(物) 역시 두 양식(樣式)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差異點)인 공포배치(拱包配置)는 그대로 지키고 있다. 우리들이 보통(普通) 주심포(柱心包) 또는 다포(多包)집이라 하는 것은 이 차이(差異)로서 구별(區別)하고 있는 것이다.

주심포(柱心包)와 다포(多包)의 두 양식(樣式)은 도입(導入)된 후 얼마동안은 새로운 건물(建物)을 축조(築造)하는데 아무런 규범(規範)없이 임의(任意)로 어느 한 양식(樣式)이 선택(選擇)되었던 것 같으며 이조시대(李朝時代)에 극히 초기(初期)에 있어서는 중앙(中央)에서 운영(運營)되는 주요건물(主要建物)은 태조(太祖)가 심복(心服)하고 있었던 선종승(禪宗僧)인 무학대사(無學大師)의 영향(影響)인지 대부분(大部分)이 다포(多包)집양식(樣式)으로 되었다. (당시(當時) 중국(中國)의 선종사찰(禪宗寺刹)은 다포(多包)집양

식(樣式)으로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日本)에는 다포(多包)집양식(樣式)이 선종승(禪宗僧)에 의(依)하여 전도(傳導)되었다). 그러나 이조초기(李朝初期)에서는 주심포(柱心包)집과 다포(多包)집양식(樣式)을 그 건물(建物)의 사용목적(使用目的)과 외관상(外觀上)의 필요(必要)에 따라 구분(區分)하여 채택(採擇)하는 경향(傾向)을 나타내게 되었다. 즉 다포(多包)집은 궁전宮殿) 성문(城門) 또는 사찰(寺刹)의 주요법당(主要法堂)등과 같이 위풍(威風)이 요구(要求)되고 화려(華麗)하여야 할 건물(建物)에 주로 사용(使用)되고 주심포(柱心包)집은 사사롭고 간소(簡素)한 느낌을 필요(必要)로 한다든지 또는 그 간소(簡素)한 외관(外觀)으로서 충분(充分)한 건물(建物)인 종묘(宗廟)·저택(邸宅) 또는 사찰(寺刹)의 이차적(二次的)인 법당(法堂)이나 부속건물(附屬建物)등에 채용(債用)되게 되었다. 이렇게 건물(建物)이 가지는 성격(性格)에 따라 건축양식(建築樣式)을 구별(區別)하여 채택(採擇)하는 건축활동(建築活動)은 건국초기(建國初期)에 흔히 볼 수 잇는 견실(堅實)한 건설적(建設的)인 정신(精神)에서 이루어진 합리적(合理的)인 태도(態度)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후로 차차 이러한 기풍(氣風)이 적어져 외관상(外觀上) 화려(華麗)하다 하여 외포(外包)집양식(樣式)이 일반적(一般的)으로 많이 채용(債用)되는 경향(傾向)을 나타내게 되었다.

주심포(柱心包)집과 다포(多包)집의 두 양식(樣式)의 구체적(具體的)인 차이점(差異點)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주심포(柱心包)집과 다포(多包)집의 가장 뚜렷한 양식적(樣式的)인 차이(差異)는 기둥 윗 부분(部分)에 놓이는 공포(拱包)의 배치방법(配置方法)에 있다. 즉 주심포(柱心包)집은 기둥위에 주두(柱頭)를 두고 그 위에만 공포(拱包)를 짜 올리는 것이며 원칙적(原則的)으로는 기둥 위와, 그리고 주간(柱間)에 일조(一組) 이상(以上)의 공포(拱包)를 배치(配置)하는 것이다. 심원사(心源寺) 보광전(普光殿)만은 건물측면(建物側面)의 공포(拱包)가 기둥 위치(位置)와는 관계(關係)없이 배치(配置)된 유일(唯一)한 유구(遺構)로서 고식(古式)을 남긴 귀중(貴重)한 것이다. 이 공포(拱包)의 배치방법(配置方法)의 차이(差異)는 구조역학적(構造力學的)으로 보아도 차이(差異)가 있는 것으로 전자(前者)는 공포(拱包)로부터 윗 부분(部分)의 하중(荷重)을 기둥 위에 있는 공포(拱包)를 통(通)하여 기둥에만 전달(傳達)하며 후자(後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포(拱包)위의 하중(荷重)을 일단 기둥과 벽간(壁間) 창방(昌枋) 위의 평방(平枋)에 분산(分散)하여 다시 그 하중(荷重)을 기둥과 벽체(壁體)에 갈라서 전달(傳達)하는 것으로 건축구조상(建築構造上)으로 볼 때는 후자(後者)의 경우가 전자(前者) 보다 발달(發達)되고 진보(珍寶)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밖에 세부양식(細部樣式)에 있어서의 차이(差異)를 본다면 주두(柱頭) 및 공포부분(拱包部分)과 보(량(樑)) 또는 홍예량(虹蜺樑) 천장(天障) 그리고 보 위에서 마루도리를 받치는 대공(臺工) 또는 동자주(童子柱)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포(拱包)의 형태(形態)]

공포(拱包)의 출목수(出目數)가 주심포(柱心包)집에서는 이출목(二出目)에 끝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에 현존(現存)하는 유구(遺構)만에 한(限)하여 말 할 수 있는 것으로 일본(日本)에서는 육출목(六出目)이나 되는 유례(遺例)도 있다) 다포(多包)집에서는 삼출목(三出目) 또는 그 이상(以上)을 볼 수 있고 건물내부(建物內部)와 외부(外部)에 따라 출목수(出目數)가 다른 경우도 있으며 공포(拱包)의 횡적(橫的)인 전개(展開)도 주심포(柱心包)집에서는 이출목(二出目)째의 공포(拱包)만이 옆으로 전개(展開)되는 간결(簡潔)한 것이고 다포(多包)집에서는 이것이 삼단(三段)으로 전개(展開)되는 화려(華麗)한 것이

다. 또 주심포(柱心包)집의 공포(拱包)는 주두(柱頭)와 첨차 끝을 받치는 소루굽의 단면(斷面)이 내반(內反)된 곡선(曲線)이 되고 이 굽 밑에는 굽받침이 놓이게 되나 다포(多包)집에서는 이 굽의 단면(斷面)이 모두 직선(直線)으로 되고 굽받침이 없다. 그러나 다포(多包)집의 주두(柱頭)나 소루 굽 단면(斷面)이 내경(內傾)한 직선(直線)이란 것도 현존(現存)하는 우리 나라 목조건물(木造建物)에서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시대(高麗時代)에 건립(建立)된 경천사(敬天寺) 다층석탑(多層石塔)에서는 그 양식(樣式)이 다포(多包)집이면서 주두(柱頭)나 소루의 굽 단면(斷面)이 확실(確實)히 내반(內反)된 곡선(曲線)으로 되었고, 중국(中國)이나 일본(日本)에서도 이에 속하는 건물(建物)은 역시 곡선(曲線)을 나타내고 있기에 원래(元來)는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것이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 첨차의 모양이 주심포(柱心包)집은 공포(拱包) 전체가 간단(簡單)한데 비(比)하여 공포 또는 첨차의 하단(下端)이 복잡(複雜)한 S자(字)를 연속(連續)한 곡석(石)이 되고 다포(多包)집에서는 공포(拱包)가 복잡화려(複雜華麗)함에 비(比)해 간단(簡單)한 곡선(曲線)이나 또는 원고형(圓孤形)으로 된다. 그리고 일출목(一出目)째의 점차 즉 공포(拱包)의 가장 아래에 있어서 건물벽면(建物壁面)에서 직각(直角)으로 밖으로 나오는 첨차가 주심포(柱心包)집에서는 주두(柱頭) 밑에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相當)히 많으나, 다포(多包)집에서는 반드시 주두(柱頭)위에서 나오게 된다.

[보(량(樑))의 형태(形態)] 주심포(柱心包)집의 보의 단면(斷面)은 윗변(邊)이 넓고 아랫변(邊)이 좁으며 네모가 둥글게 깎인 사다리꼴이 되고 보 끝단에서 키가 적어지는데 다포(多包)집에서는 그 단면(斷面)이 키가 큰 구형(矩形)으로 그 밑바닥은 둥글게 깎았으며 굵기는 끝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천장(天障)의 유무(有無)] 주심포(柱心包)집에서는 소위(所謂) 말하는 천장(天障)이 없고 연등천장(天障)이라고 불리는 선자목(扇子木) 및 연(椽)골을 건물내부(建物內部)에서 보아 흉하지 않도록 단청화장(丹靑化粧)을 하여 별다른 천장가구(天障架構)를 가지지 않고 지붕 밑 가구재(架具材)가 아래서 볼 수 있도록 된 것이며 다포(多包)집에서는 격자천장(格子天障)이나 또는 다른 종류(種類)의 천장가구(天障架構)를 가지게 된다. 그러기에 전자(前者)에 있어서는 지붕 밑의 각종(各種) 가구재(架具材)에도 장식적(裝飾的)인 의장(意匠)을 가(加)하게 되고 후자(後者)의 경우에는 천장(天障)으로 가려지게 되는 지붕위의 가구재(架具材)는 거의 장식적(裝飾的)인 의장(意匠)을 가지지 않는다. [대공(臺工)과 동자주(童子柱)] 상하(上下)의 가구재(架具材)를 지탱(支撐)하여 상부하중(上部荷重)을 하부(下付)에 전달(傳達)시키는 역할(役割)을 하는 부재(部在)의 일종(一種)으로서 주심포(柱心包)집에서는 파련대공(波蓮臺工)이나 복화반(覆花盤) 같은 복잡한 조각(彫刻)과 형태(形態)를 가진 미적(美的)인 구조재(構造材)를 사용(使用)하나 다포(多包)집에서는 장식적(裝飾的) 의장(意匠)이 없는 동자주(童子柱)를 사용(使用)한다. 이상(以上), 주심포(柱心包)집과 다포(多包)집양식(樣式) 사이의 기본적(基本的)인 뚜렷한 차이(差異)를 말하였으나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순수(純粹)한 주심포(柱心包)집양식(樣式)만으로 된 유구(遺構)는 이미 없어지고 다포(多包)집에서는 비교적(比較的) 순수(純粹)한 양식(樣式)을 남긴 것이 많이 남아있다. 이것도 주심포(柱心包)집양식(樣式)이 다포(多包)집양식(樣式)보다 오래된 양식(樣式)이고 또 시대(時代)가 내려오면서 다포(多包)집양식(樣式)의 건물(建物)이 더욱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들 두 건축양식(建築樣式)의 혼용상태(混用狀態)와 그 과정(過程)을 고찰(考察)해 보겠다. 주심포(柱心包)집에 다색(多色)집양식(樣式)이 가장 일찍이 그리고 보편

적(普遍的)으로 들어온 것은 주두(柱頭)나 소루의 굽의 형태(形態)이다. 즉 이 굽의 단면(斷面)이 내경(內傾)한 직선(直線)으로 되고 굽받침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양식(樣式)의 가장 뚜렷한 유례(遺例)로서는 타부분(他部分)에서 주심포(柱心包)집의 특징(特徵)을 나타내면서 이 부분(部分)만이 다포(多包)집양식(樣式)을 가진 무위사(無爲寺) 극락전(極樂殿)과 자혜자(慈惠寺) 약사전(藥師殿)등이 있다.
이와 반대(反對)로 다포(多包)집양식(樣式)의 건물(建物)에 주심포(柱心包)집양식(樣式)을 혼용(混用)한 것으로 가장 대표적(代表的)인 것은 평양보통문(平壤普通門)이 있으며 이것은 다포(多包)집의 가장 특징적(特徵的)인 기둥과 주간(柱間)의 창방(昌枋)위에 놓이는 평분(平扮)이 없고 공간포(空間包)(주간(柱間)에 놓이는 공포(拱包))가 바로 창방(昌枋)위에 놓이고, 종도리(宗道里)를 동자주(童子柱) 대신에 파연대공(波蓮臺工)으로 받게 하며 천장(天障) 또한 화장(化粧)한 연등천장(天障)으로 한 것이다. 이 평양보통문(平壤普通門)의 공포(拱包)를 배치(配置)하는 방법(方法)은 다포(多包)집에 주심포(柱心包)집양식(樣式)을 혼용(混用)하는 가장 초기적(初期的)인 유례(遺例)로서 구조역학적(構造力學的)인 원리(原理)를 무시(無視)한 불합리(不合理)한 것으로 그 후에는 이런 수법(手法)은 사용(使用)되지 않았던 것 같다. 또 천장(天障)과 보를 받치는 동자주(童子柱)가 연등천장(天障)과 복화반(覆花盤)으로 된 다포(多包)집으로는 개심사(開心寺) 대웅전(大雄殿)이 있다. 이러한 두 양식(樣式)의 혼용(混用)은 시대(時代)가 내려오면서 점점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질적(異質的)인 양식(樣式)을 혼용(混用)하게 된 원인(原因)으로서는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는 가공기법(加工技法)의 간략화(簡略化)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주두(柱頭)나 소루굽이 다포(多包)집양식(樣式)의 것으로 변(變)하는 것이 그 예(例)라 할 수 있겠다. 둘째로 미관상(美觀上)의 필요(必要)에 의(依)한 것이며 동자주(童子柱) 대신(代身)에 주심포(柱心包)집양식(樣式)의 파련대공(波蓮臺工)이나 복화반(覆花盤)을 채용(採用)하는 예(例)가 이것이며 셋째로 건물(建物)이 가지는 성격상(性格上) 필요(必要)하였던 것이며 성문(城門)이 다포(多包)집으로 되면서 천장(天障)만은 연등천장(天障)으로 한 것 같은 예(例)를 들 수 있다.

주심포(柱心包)집 양식(樣式)의 유구(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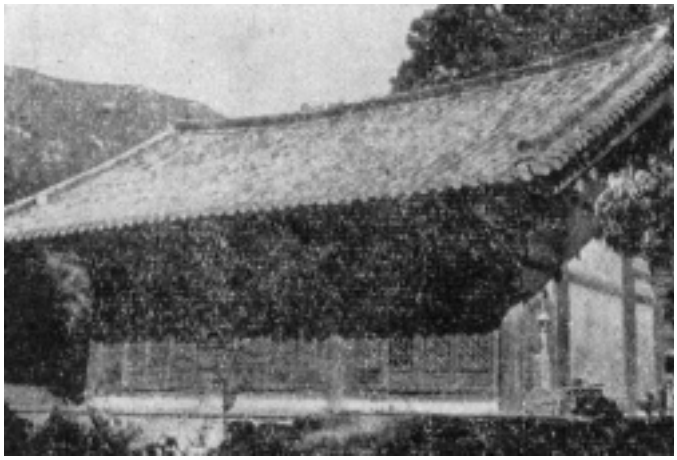
주심포(柱心包)집유구(遺構)로서 가장 이름 높은 것은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無量壽殿)과 봉정사(鳳停寺) 극락전(極樂殿)이나 그밖에도 수덕사(修德寺) 대웅전(大雄殿), 부석사(浮石寺) 조사당(祖師堂), 은해사(銀海寺), 거조암(居祖庵) 영산전(靈山殿)등 법당(法堂)과 강릉(江陵) 객사문(客舍門), 도갑사(道岬寺) 해탈문(解脫門) 등 중요(重要)한 것이 많다. 여기서는 이 중 양식적(樣式的)으로 가장 중요(重要)한 것 몇 개만에 대(對)하여 해설(解說)을 하겠다(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無量壽殿)) 무량수전(無量壽殿)은 부석사(浮石寺)의 본전(本殿)으로 정면오간(正面五間), 측면삼간(側面三間)의 단층팔작(單層八作)지붕으로 되었다. 이 건물(建物)은 우리 나라에 유존(遺存)하는 목조건물(木造建物)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建物)로서 일찍 이름 높은 것이다. 이 건물(建物)의 가장 특징적(特徵的)인 것은 기둥머리에 짜인 주두(柱頭)와 공포부분(拱包部分)으로써 주두(柱頭)와 소루가 모두 굽밑에 굽받침을 가지고 있고 이출목(二出目)으로 된 첨차 하단(下端)이 S자형(字形)의 단순(單順)한 곡선(曲線)으로 된 점등이다. 이들은 모두 주심

포(柱心包)집양식(樣式)의 조형(祖型)에 가까운 형태(形態)로 인정(認定)도어 있다. 그밖에 배흘림이 큰 기둥이나 내부구조(內部構造)에 있어 이중량(二重樑)의 사이를 주두(柱頭)위의 공포(拱包)와 거의 같은 양식(樣式)으로된 간결(簡潔)한 포대공(包臺工)이 지탱(支撐)하고 있고 또 종량(宗樑)위에서는 제형(梯形)으로 된 복화반(覆花盤)의 선행양식(先行樣式)의 가구재(架具材)가 종도리(宗道里)를 받치고 있다. 이 건물(建物)은 주심포(柱心包)집양식(樣式)의 건물(建物)로서는 비교적(比較的) 규모(規模)가 큰 것이며 전체(全體)의 균형(均衡)도 아름답고 과식(過飾)이 적고 기능(機能)에 충실(充實)한 아름다운 건축(建築)으로 주목(注目)되어 있다. 그 건립연대(建立年代)에 관(關)해서는 1916년(一九一六年)에 있었던 수리공사(修理工事)에 의(依)해 발견(發見)된 명문(銘文)으로 1376년(一三七六年)의 중건(重建)이라고 되었으나 동연대(同年代)의 건립연대(建立年代)가 확실(確實)한 건물(建物)에 비(比)하여 훨씬 양식적(樣式的)으로 앞서는 것으로 학계(學界)에서는 13세기(一三世紀) 전반(前半)에 건립(建立)된 것이라고 생각되어 있다.
(수덕사(修德寺) 대웅전(大雄殿)) 정면삼간(正面三間), 측면사간(側面四間)의 특이(特異)한 평면(平面)을 가진 단층(單層) 맞배지붕으로 된 법당(法堂)으로 공포(拱包)는 이출목(二出目)으로 되었다. 그 가구방법(架構方法)은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無量壽殿)과 꼭 같으면서 세부(細部) 의장(意匠)에 차이(差異)가 있어 양식상(樣式上)으로 이것이 후세(後世)의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초방(草枋) 위에서 주심도리(柱心道里)를 연결하는 우미량, 고주(高柱) 위에서 초방(草枋) 위에 이르는 우미량 등이 무량수전(無量壽殿)에서는 거의 직선재(直線材)였으나 여기에서는 전형적(典型的)인 곡솔(曲率)이 큰 우미량으로 되었고, 또 종심도리(宗心道里)를 좌우(左右)에서 받치는 소슬도 전자(前者)는 직선재(直線材)로 되었고 이것은 내반(內反)된 곡선재(曲線材)를 사용(使用)하고 있다. 이밖에 세부양식(細部樣式)에 있어서도 공포(拱包)의 이출목(二出目)째의 첨차가 앙설형태(仰舌形態)를 가지게 되고 종심도리(宗心道里)를 종량(宗樑)위에서 받치고 있는 대공(臺工)이 복잡한 장식(裝飾)을 가진 파연대공(波蓮臺工)으로 되는 점등 무량수전(無量壽殿)에 비(比)하여 더욱 장식적(裝飾的)인 의장(意匠)을 많이 가(加)해진 것이다. 이 대웅전(大雄殿)은 1940년경(一九四0年頃)에 수리공사(修理工事)가 실시(實施)되었으나 그 때 각부재(各部材)에서 발견(發見)된 묵서명(墨書銘)으로써 1308년(一三0八年)에 건립(建立)된 것이 밝혀졌으며 이것이 무량수전(無量壽殿)과의 연대(年代)를 추정(推定)하는 좋은 유례(遺例)가 된 것이다.

봉정사(鳳停寺) 극락전(極樂殿)

(봉정사(鳳停寺) 극락전(極樂殿)) 정면삼간(正面三間) 측면이간(側面二間)의 단층(單層) 밋배지붕으로 되었다. 이 건물(建物)의 양식(樣式)은 앞에서 말한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無量壽殿)과 비슷하나 공포(拱包)의 세부양식(細部樣式)에 중요(重要)한 차이(差異)를 발견(發見)할 수 있다. 즉 주두(柱頭)와 소루에 굽받침이 없어진 대신에 그 굽의 단면(斷面)이 내반(內反)한 곡(曲)으로 되고 첨차 끝이 수직(垂直)으로 끊어져 그 하단(下端)의 곡선(曲線)도 매우 간단(簡單)한 선(線)으로 되었다. 이러한 점(點)이 창방(昌枋)의 뺄목끝의 수직(垂直)으로 끊긴 점(點)과 아울러 우리나라 목조건물중(木造建物中) 가장 충실(充實)하게 주심포(柱心包)집양식(樣式)을 남긴 건물(建物)로서 중요(重要)하다. 내부가구(內部架構)는 역시 무량수전(無量壽殿)과 대차(大差)없으나 종심도리(宗心

道里)를 보위에서 받치는 복화반(覆花盤)의 형태(形態)가 마치 일본(日本)의 「 고(股)」라고 불리는 부재(部材)의 초기적(初期的)인 형태(形態)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제형(梯形)의 하부좌우(下部左右)에 파연장(波蓮狀)의 장식(裝飾)을 부가(附加)한 형태(形態)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복화반(覆花盤)의 형태(形態)나 굽받침이 없고 굽의 단면(斷面)이 내반(內反)된 곡선(曲線)으로 된 점(點)은 주심포(柱心包)집양식(樣式)이라기보다 그 이전(以前)에 있었던 건축양식(建築樣式)의 흔적(痕迹)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이 건물(建物)의 건립연대(建立年代)에 관(關)해서는 고려중기(高麗中期)로 보는 설(說)과 말기(末期)로 보는 설(說)이 있으나 필자(筆者)는 중기(中期)의 것으로 보려한다.



무위사(無僞寺) 극락전(極樂殿)

(무위사(無僞寺) 극락전(極樂殿)) 극락전(極樂殿)은 정면(正面) 및 측면(側面)이 각각(各各) 삼간(三間)으로 된 단층(單層) 맞배기지붕으로 되었다. 공포(拱包)는 이출목(二出目)으로 앙설(仰舌)가 앞에서 말한 건물(建物)들에 비(比)해서 매우 발달(發達)된 곡선(曲線)으로 되었다. 내부(內部)의 대량(大樑)을 받치는 량봉(樑棒)과 종량(宗樑)을 지탱(支撐)하는 중대공(中臺工) 또는 종심도리(宗心道里)를 받치는 종대공(宗臺工)들이 파연문양(波蓮文樣)으로 된 것이나 아직 과식(過飾)에 지나치지 않고 비교적(比較的) 간결(簡潔)하고 견실(堅實)한 수법(手法)으로 된 건물(建物)이다. 이 건물(建物)의 건립시대(建立時代)는 해방 후(解放後) 실시(實施)된 수리공사(修理工事)에서 본존(本尊) 후벽(後壁)의 벽화(壁畵) 속에 기록(記錄)된 녹기문(綠起文)에 의(依)하여 1476년(一四七六年) 이전(以前)에 건립(建立)된 것이 밝혀졌다.

다포(多包)집 양식(樣式)의 유구(遺構)

다포(多包)집양식(樣式)으로 된 건물(建物)은 궁전(宮殿) 성문(城門) 및 사찰건물(寺刹建物)등에 많은 유구(遺構)가 남아 있다. 특히 고려시대(高麗時代)에 만들어진 것으로는 심원사(心源寺) 보광전(普光殿)과 석왕사(釋王寺 응진전(應眞殿)등이 있으나 모두가 북한(北韓)에 소재(所在)하여 보지 못함이 유감스럽다. 여기에서는 이들 건물(建物)을 비롯한 중요(重要)한 유구(遺構)에 대(對)하여 말할까 한다.
(심원사(心源寺) 보광전(普光殿))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에 있으며 정(正)·측면(側面)이 모두 삼간(三間)으로 된 단층(單層) 팔작(八作)지붕을 가진 건물(建物)이다. 구

조(構造)는 기둥머리와 창방(昌枋)위에 평방(平枋)을 돌리고 기둥 위에 주두(柱頭)를 올려 그 위에 내외(內外)모두가 삼출목(三出目)으로 된 공포(拱包)를 올리고 있다. 이 건물(建物)의 가장 특징적(特徵的)인 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 측면(側面)의 공포(拱包)는 건물(建物)의 격주(隔柱) 위에만 짜이고 타(他)는 모두 기둥과는 관계(關係)없이 등간격(等間隔)으로 공간포(空間包)를 짜 올리고 있는 점(點)이다. 이것은 다포(多包)집양식(樣式)의 공포(拱包)가 원래(元來) 미적(美的)인 의식(意識)에서 발생(發生)한 것이 아니고 순수(純粹)한 구조적(構造的) 요건(要件)으로 발생(發生)하였던 것이 점차 미적(美的)인 균형(均衡)이 잡힌 형태(形態)로 그의 배치(配置)를 조절(調節)하게 된 과정(過程)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원적(始原的)인 가구방식(架構方式)이라고 생각된다. 첨차끝의 우설(牛舌)도 짧고 경직(硬直)한 느낌을 주는 간결(簡潔)한 것이다. 이 건물(建物)의 건립연대(建立年代)는 확실(確實)치 못하나 사전(寺傳)에 의(依)하면 1374년(一三七四年)이라고 한다. 건물(建物)이 가지는 고격(古格)으로 보아 다포(多包)집양식(樣式)이 도입(導入)된 후의 가장 초기적(初期的)인 것으로 그 연대(年代)는 요당(要當)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석왕사(釋王寺 응진전(應眞殿)) 함남(咸南) 안변군(安邊郡)에 있으며 정면오간(正面五間) 측면이간(側面二間)의 단층(單層) 맞배지붕의 건물(建物)이다. 이 건물(建物)은 다포(多包)집이기는 하나 이출목(二出目)으로 된 공포(拱包)는 주두(柱頭)위와 주간(柱間)에 일구(一具)씩의 공간포(空間包)를 가질 분으로 공포(拱包)와 공포(拱包)사이가 매우 넓고 출목수(出目數)가 적기에 주심포(柱心包)집 같은 느낌을 준다. 이것은 하대(下代)의 다포(多包)집과 같이 복잡(複雜)한 공포배치(拱包配置)를 취(取)하지 않고 상부하중(上部荷重)을 평방(平枋)을 거쳐 하부(下部)에 전달(傳達)하는데 꼭 필요(必要)한 수(數)의 공포(拱包)만을 배치(配置)한 것이고 다포(多包)집에서는 그 유례(遺例)가 비교적(比較的) 적은 내외(內外) 이출목(二出目)의 공포(拱包)라는 것도 외관(外觀)의 호화(豪華)를 위하여 출목수(出目數)를 많게 하여 오히려 그 부분(部分)의 파손(破損)을 초래(招來)하는 우(愚)를 피(避)한 견실(堅實)한 수법(手法)이라고 생각된다. 이 건립연대(建立年代)는 이태조(李太祖)가 등극(登極)하기 전(前)인 1386년(一三八六年)이다.

(서울 남대문(南大門)) 본(本) 명칭(名稱)을 숭례문(崇禮門)이라 하며 서울 성곽(城廓)의 정남문(正南門)이다. 문(文)은 중앙(中央)에 커다란 홍예문(虹蜺門)을 가진 축대(築臺)위에 선 정면오간(正面五間) 측면(側面) 이간(二間)의 중층(重層) 우진각 지붕이다. 공포(拱包)는 상하층(上下層) 모두가 내외이출목(內外二出目) 정면(正面)으로 중앙주간(中央柱間)에는 사구(四具), 중앙간(中央間)의 양(兩)옆 문(門)에는 이구(二具), 끝간(間)과 측면(側面)은 모두 일구(一具)의 공간포(空間包)를 가지고 있다. 양식(樣式)은 간직(簡直)하고 힘찬 선(線)으로 이루어져 웅위(雄偉)하고 단려(端麗)한 우리 나라 최대(最大) 규모(規模)의 성문(城門)이다. 최근(最近)에 있었던 해체(解體) 수리(修理)에 의(依)하여 당초(當初)의 지붕 형태(形態)가 팔작(八作)지붕이었던 것이 밝혀졌다. 건립연대(建立年代)는 세종(世宗)30년(三0年)에 재건(再建)되었다는 것이었으나 다시 성종(成宗)10년(一0年)에도 큰 수리(修理)가 행하여 졌던 것을 알게 되었다.

개심사(開心寺) 대웅전(大雄殿) 정면(正面) 측면(側面)이 모두 삼간(三間)이며 단층(單層) 맞배지붕으로 된 건물(建物)이다. 공포(拱包)는 외부(外部)이출목(二出目), 내부(內部)삼출목(三出目)으로 되어 내부(內部)의 이출목(二出目)과 삼출목(三出目)째만이 운관(雲官)으로 되었다. 또 이 건물(建物)에는 종심도리(宗心道里)를 종량(宗樑)위에서 받치

는 부재(部材)와 종량(宗樑)과 대량(大樑)을 받치는 부재(部材)가 모두 주심포(柱心包)집양식(樣式)의 파연대공(波蓮臺工)과 복화반(覆花盤)을 사용(使用)하여 동자주(童子柱)를 사용(使用)하지 않고 있다. 천장(天障) 역시 천장가구(天障架構)가 없는 연등 천장(天障)으로 되어 있다. 공포(拱包)의 배치(配置)는 정(正)·후면(後面)에만 주간(柱間)에는 각각(各各) 이구(二具)의 공간포(空間包)를 짜 올리고 있고 측면(側面)에는 공포(拱包)를 배치(配置)하지 않았다. 이 건물(建物)은 그밖에도 가구양식(架構樣式)이 도리행(道里行)(항행(桁行))을 다포(多包)집양식(樣式)으로 하고 량행(樑行)에는 주심포(柱心包)집양식(樣式)을 많이 채용(採用)한 전형적(典型的)인 혼합양식(混合樣式)으로서 이조초기(李朝初期)의 건축연구(建築硏究)에 중요(重要)한 유구(遺構)이다. 건립연대(建立年代)는 1941년(一九四一年)의 수리공사(修理工事)에 의(依)하여 성종(成宗)15년(一五年)임이 밝혀졌다.

이상(以上) 고려시대(高麗時代)와 이조시대(李朝時代)의 건축(建築)을 개설(槪說)하였다.

필자(筆者)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 고고과장(考古課長)

유적(遺跡)

고고학(考古學)의 대상(對象)을 넓이 유적(遺跡)이라고 한다. 가동적(可動的)인 유물(遺物)에 대립(對立)하여 사용(使用)할 때에는 형체(形體)가 크고 이동(移動)이 곤란(困難)한 것, 또는 유물(遺物)의 집단유물존재(集團遺物存在)의 흔적(痕迹)을 가지는 토지(土地)이다. 유적(遺跡)으로 취급(取扱)된 것은 건물(建物), 도성(都城), 궁성(宮城), 분묘기념물(墳墓記念物), 제사소(祭祀所), 사원(寺院), 창고(倉庫), 매장소(埋藏所)등(等) 소위(所謂) 구축물(構築物)이 있는 장소(場所)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구조자체(構造自體)가 상실(喪失)될 것이 많고 단지 토기편(土器片), 와편(瓦片)이 산재(散在)해있을 장소(場所), 또는 전혀 유물(遺物)이 존재(存在)하지 않고 과거(過去) 존재(存在)하였던 지점(地點)을 말할 때가 있다.

따라서 유적(遺跡)은 물체(物體) 그 자체(自體)가 아니고 공간적(空間的) 지리적(地理的) 개념(槪念)이다. 오늘날 전혀 흔적(痕迹)이 없어진 지점(地點)이라도 과거(過去)에 구축물(構築物)이 있었다는 사실(事實)이 연구(硏究)의 대상(對象)이 되는 고(故)로 유적(遺跡)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이다. 유적(遺跡)의 조사(調査)는 단지(單只) 과거(過去)의 구축물(構築物)의 구조(構造)를 연구(硏究)한다던가 유물(遺物)을 채집(採集)하는데 그치지 않고 입지(立地) 환경(環境)이 문제(問題)가 되는 것이다. 하나의 구축물(構築物)이 현금상태(現今狀態)로 붕괴(崩壞)하고 매몰(埋沒)된 과정(過程) 또한 둘 이상(以上)의 구조물(構造物)이 누적(累積)된 시간적(時間的) 상호관계(相互關係)도 명백(明白)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적(遺跡)의 조사(調査)에 있어서 층위적 연구(層位的硏究)가 특(特)히 중시(重視)되는 이유(理由)이다. 유적(遺跡)을 분류(分類)하려면 구축물(構築物)의 종류(種類)의 호칭(呼稱)을 그대로 채용(採用)하는 이외(以外)에 유적(遺跡)의 현상(現狀)에 의(依)하여 유물포함지(遺物包含地) 유물산포지(遺物散布地), 니탄층유적(泥炭層遺跡) 아스팔트층 유적(遺跡) 수저유적(水底遺跡) 화산회하유적(火山灰下遺跡), 사구유적(砂丘遺跡), 패총유적(貝塚遺跡), 동굴유적(洞窟遺跡)등(等)의 호칭(呼稱)이 사용(使用)되지만 대다수(大多數)는 주거지 매장지 관계(住居址 埋葬地 關係)의 것이다

내고장 내문화재
내가 먼저 애호하자